

6일 Market Index			
↑ 코스피	7384.56	↓ 코스닥	1210.17
	(+447.57)		(-3.57)
↓ 금리 (연이자율)	3.595	↓ 환율 (원/달러)	1452.45
	(-0.020)		(-10.35)

SK하이닉스
박노정 사장의
'원팀 리더십'
04



영업이익 94% 낸 DS 성과급 나눠주기 '반발'

◆삼성전자 초격차의 역설

① 호황이 키운 노조 파열음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새 지평을 열고 있지만, 성과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둘러싼 내부 갈등은 심화되고 있다. 반도체 초호황이 조직 내 보상 구조의 균열을 드러내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 57조2000억원으로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이 중 DS(반도체) 부문이 53조7000억원을 기록하며 전자 영업이익의 94%를 차지했다. AI 반도체 수요 급증과 HBM(고대역폭메모리) 시장 주도권 회복이 맞물린 결과다. 그러나 이 같은 실적 격차가 사업부 간 성과 배분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1분기 영업이익 57.2조 '사상최대' 이 중 DS부문 지분 53.7조 달해

업계추산 1인당 성과급 평균 6억 DS 관계자 "인력 30% 배치하고 성과급 나눠 달라는 건 이해 안돼"

DX부문 성과급 논의 사실상 배제 노조 탈퇴, 하이닉스 이직 분위기

노조 공동투쟁본부가 올해 임단협에서 요구하는 핵심 안건은 OPI(초과이익 성과급) 기준을 영업이익의 20%로 확대하는 것이다. 업계 추산 기준 노조 요구안이 반영될 경우 메모리사업부 직원 1인당 평균 약 6억원 수준의 성과급 지급이 가능하다는 계산도 나온다.

사측은 조직 내 위화감을 완화하기 위해 DS부문 업계 1위 달성 시 '최고대우'를 보장하는 종합 보상 패키지를 제시했다. 특별 포상과 자사주 지급, 근로 조건 개선, 복리후생 강화 등을 포함한 방안이었다. 그러나 현장 반응은 싸늘했다.

삼성전자 DS부문 관계자는 "주식으로 받으면 추가 세금도 있고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며 "하이닉스처럼 현금 PS(생산성격려금)로 달라는 것인데, 주식으로 주는 품수 말고 현금으로 달라는 요청"이라고 전했다.

갈등은 DS 내부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초기업노조가 과반 지위 유지를 위해 수년째 적자를 이어온 파운드리·LSI 사업부를 끌어안으면서 메모리 조합원들 사이에서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것. 성

과를 낸 메모리 사업부가 적자 사업부와 성과급을 나눠야 하는 구조에 대한 반발이다.

DS부문 관계자는 "파운드리와 LSI는 메모리 사업부 인력을 30% 배치해 놓고 이제 와서 성과급 나눠달라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며 "메모리도 결국 제대로 못 받겠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SK하이닉스로의 이직을 고민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고 했다.

여기에 에 DX부문 조합원들이 노조 탈퇴를 단행하며 노조 내부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 스마트폰·가전·TV를 담당하는 DX(디바이스경험)부문은 1분기 영업이익이 3조원에 그치면서 성과급 논의에서 사실상 배제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공동투쟁본부의 핵심 요구안이 사실상 DS부문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DX부문 조합원들은 파업에 동참하면서도 정작 성과급 혜택은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다. 여기에 반도체 호황 이전부터 쌓인 박탈감이 더해지면서 이탈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삼성전자 다른 관계자는 "MX(모바일경험)가 잘 되고 성과급을 받을 때 반도체는 이익이 없어서 0%를 받아도 가만히 있었는데, 이제 반도체 실적이 압도적으로 커지면서 격차에 대한 박탈감이 커진 것 같다"며 "노조마저 반도체 중심으로만 움직이니 더 이상 같이 있을 이유가 없다는 분위기가 DX 쪽에 퍼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결국 이 같은 구조적 불만이 탈퇴 러시로 이어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인부 홈페이지 탈퇴 신청은 지난달 28일 하루 500건, 29일 1000건을 돌파했다. 지난 일주일간 약 1500명이 탈퇴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대부분 DX부문 소속이다. 조합비 자동공제 구조가 탈퇴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총파업을 앞두고 노조 지도부의 휴가 및 강경 발언 논란까지 겹치면서 내부 반발이 더 커졌다는 분석도 있다.

지난 4일 삼성전자노조동행(동행노조·조합원 약 2300명)이 공동투쟁본부 탈퇴를 공식 선언하면서 내부 균열은 표면화됐다. 동행노조 측은 "전체 조합원 권익을 위한 안전 발의 및 요청에도 삼성전자 유일 과반 노조인 초기업노조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 측에서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고, 협의하려는 의사조차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metro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7000선을 돌파해 7384.56으로 마감한 6일 오후 서울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국민은행 스마트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종가 7300선 마감을 기념하고 있다. /뉴시스

꿈의 7000피... 삼전, 시총 1조弗 '새역사'

시총 1조달러 기업 전세계 13곳 뿐 26만 전자, 160만 닉스 '신고가' 코스피 6.45% 오른 7384.56 마감

코스피가 꿈의 '7000'선 고지를 밟았다. 삼성전자는 아시아 기업 중 두 번째로 시가총액 '1조달러(1555조원) 클럽'에 이름을 올렸다. 시총 1조달러는 이른바 '트릴리언 클럽'이라 불릴 정도로 세계 증시에서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삼성전자를 포함해 전 세계 기업 중 단 13곳뿐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6.45% (447.57포인트) 오른 7384.56에 마감했다. 장중에는 7426.60을 찍었다. '7천피' (코스피지수 7000)에 오른 것은 지난 2월 25일 역대 처음으로 6000선을 뚫은 지 47거래일 만이다. 지수가 급등하자 이날 유가증

권시장에서는 올해 8번째 매수 사이드 카가 발동됐다. 코스피 시가총액도 사상 처음으로 6000조원 (6068조원)을 넘겼다. <관련기사 3면>

'7천피'의 주역은 단연 반도체 '투톱'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26만 전자' '160만 닉스'에 안착한 가운데 전장 대비 14.41%, 10.64% 상승폭을 더했다. 특히 삼성전자는 대만 TSMC에 이어 아시아 두 번째로 시총 1조달러 벽을 넘었다. 세계 시총순위는 워런 버핏의 '버크셔해서웨이'와 미국의 유통 공룡 '월마트'를 제치고 11위에 올랐다. 애플이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 자사 정보기술(IT) 기기에 탑재하는 프로세서 칩 생산 파트너로 삼성전자와 인텔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호재가 됐다. 전날 미국 뉴욕증시에서 나타난 대형 기술주 강세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필라

델피아 반도체지수 흐름도 반도체 주가에 힘을 실었다.

시장 참여자들은 반도체가 여전히 싸다고 본다. 업계에 따르면 이날 종가 기준 삼성전자의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PER)은 5.6배, SK하이닉스는 4.7배로, 글로벌 동종 업종과 비교하면 과도한 수준은 아니라는 평가도 있다. 미국 메모리 제조업체 마이크론테크놀로지의 경우, 최근 선행 PER이 12배 수준이다. 애플(약 32배)과 엔비디아(약 36배) 등 빅테크 기업들도 30배 이상이다.

이날 기관(2조3090억원)과 개인(5760억원)이 차익 실현에 나선 반면,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3조1348억원을 순매수하며 상승장을 이끌었다. <2면에 계속>

/허정윤·신하은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metro

소비자물가 상승률 2.6%... 21개월새 최대폭

데이터처, 4월 소비자물가 동향 중동발 충격... 석유류 물가 22% ↑

중동전쟁발 경제 충격이 국내 물가에도 고스란히 전이됐다.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5% 선을 넘어서며, 21개월 사이 가장 큰 폭의 오름세를 나타냈다.

국가데이터처가 6일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년 전 같은 달에 비해 2.6% 올랐다. 이는 2024년 7월(2.6%) 이후 최대 폭 상승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월과 2월 각각 2.0%로 하락 추세를 보인 바 있다. 이후 중동발 충격을 받은 3월 2.2%로 오른 데 이어 4월에는 이보다 0.4%포인트(p) 뛰었다.

휘발유 등 석유류 물가가 전년동월 대비 21.9%나 치솟으며, 전체 물가를 0.84%p 밀어 올리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석유류 상승 폭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초반인 2022년 7월(35.2%) 이후 3년 9개월 사이 가장 컸다.

석유최고가격제(공급가 상한) 시행에도 불구하고, 휘발유와 경유 값이 각각 21.1%, 30.8% 뛰었다. 등유 가격은 18.7% 올랐다.

기름값 여파로 공업제품 전체 물가도 3.8% 상승했다. 이는 2023년 2월(4.8%) 이래 3년 2개월 사이 최대 폭 상승이다. 다만 가공식품 상승률이 1.0%로 전월(1.6%)보다 둔화하면서 공업제품 오름폭을 일부 상쇄했다.

또 유희활증류가 인상에 국제항공료 상승률이 15.9%까지 치솟았다. 전달인 3월의 0.8%와 대비된다. 국내항공료(0.8%)의 경우 폭이 미미했지만 5월에는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데이터처는 전망했다. 해외단체여행비용도 11.5% 뛰었다. 또 자동차수리비(4.8%)와 인건요일교체료(11.6%)가 크게 올랐고, 나프타 재료를 사용하는 세탁비(8.9%)도 상승 폭이 컸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벽지·바닥재·페인트 등을 포함하는 주택수선재료가 전월 1.0%에서 3.7%로 오름폭이 커진 것도 전쟁 영향으로 보인다"며 "이 밖에 외식이나 가공식품 등 예전 눈에 띄지 않았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metro

메트로 한줄뉴스



▲오세훈, 무주택 시민 주거 안정 위해 공공주택 13만호 공급 /사진 뉴시스
▲국힘, "공소취소 특검,李 권력 동원한 죄 뒤엎기...완전한 독재"

▲조국, "평택에 아시아·태평양 시센터 유치할 것...AI영재학교도 신설"
▲개혁신당 전성균, "화성을 새롭게 확실시"...4대 공약 교통·교육·경제·행정

▲하정우, "북구호소인? 소모적 논쟁"...박민식에 반박
▲추경호, "반드시 총괄선대본부장으로 주호영 모실 것"